

## 均衡·不均衡·反均衡理論의 方法論

李 亨 純\*

目次	
I. 序 言	V. 均衡理論의 方法論
II. 新古典派 파라다임	1. 新古典派의 效率性
1. 월라스와 마아살	2. 比較靜學과 一時的 均衡分析
2. 一般均衡理論의 精緻化	3. 新古典學派와 論理實證主義
III. 巨視經濟學의 微視的 基礎	4. 사무엘슨의 操作主義
1. 케인즈革命과 反革命의 均衡經濟學	5. 相互依存決定體系와 因果決定體系
2. 反反革命의 不均衡經濟學	VI. 不均衡理論의 方法論
IV. Post-Keynesian의 反均衡理論	VII. Post-Keynesian의 方法論
1. Post-Keynesian의 範圍	1. 쿠운의 「파라다임」論
2. 파라다임의 內容	2. 經濟學의 分類理論
3. 不確實性과 케인즈革命	VIII. 結 語
4. 反均衡의 經濟學	

### I. 序 言

최근 「現代經濟學」의 危機라는 말이 나들고 있다. 오늘날 「現代經濟學」의 主流는 新古典派經濟學이지만, 既存의 經濟理論이 現實의 經濟에서 일어나는 ①所得分配의 隔差問題, ②環境破壞·公害 및 地域間의 隔差問題, ③스태그플레이션의 問題, ④經濟成長과 에너지危機, 그리고 ⑤政府役割의 增大 등을 解明할 수 없다. 그래서 「新古典派파라다임」(neoclassical paradigm)에 대한 批判이 多岐多樣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70年 레온티에프(W. Leontief)는 美國經濟學會 會長講演에서 經驗的 基盤이 缺如된 數學的 定式化의 不毛性을 들어 「現代經濟學」의 現況을 慨嘆했다[42]. 1972年 같은 會長講演에서 갈브레이드(J. K. Galbraith)는 權力關係를 無視한 新古典派經濟學이나 New Economics 學派의 理論은 現實妥當性을 지닐 수 없다는 趣旨의 批判을 가했다[15].

1971年 英國의 Royal Economic Society의 會長講演에서 펠프스 브라운(E.H. Phelps Brown)은 「經濟學의 後進性」을 指摘했으며[55], British Association의 會長講演에서 워즈워크(G.D.N. Worswick)도 「經濟學의 進步는 可能한가」[71]등 모두 오늘의 經濟理論

\* 成均館大學校 經濟學科 教授

의 行動假說이 지나치게 抽象的이라는데 批判을 가하고, field work나 事實研究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칼도(N. Kaldor)는 1972年[29]과 1974年[30]에 행한 두個의 講演에서 均衡經濟學의 進展(드보르스의 價值理論)은 進步라기 보다는 退步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1972年 로빈슨(Joan Robinson)女史는 Ely記念講演에서 新古典派의 正統派經濟學인 왈라스流의 一般均衡理論이나 新古典派케인즈經濟學(新古典派綜合의 New Economics)이 앞에서 指摘한 現在의 經濟問題들을 解明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既存의 經濟學을 摘護하고 있다고 告發하고, 「經濟理論의 第2의 危機」를 力說하고 있다[60].

요컨대 問題의 焦點은 앞에서 지적한 現在의 經濟問題들을 新古典派의 正統派經濟學이 解明할 수 없다는 데에 「現代經濟學」의 危機問題가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新古典派經濟理論이 解明할 수 없는 現在의 經濟問題들은 쿠운(T. S. Kuhn)이 그의 『科學革命論』에서 말하는 일종의 「變則性」(anomaly)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既存의 「파라다임」의 테두리를 改良해서 이러한 「變則性」을 解明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파라다임」을 摸索하는 움직임이 있다.

本稿의 目的은 新古典派의 均衡理論, 케인즈經濟學의 再解釋을 내리고 있는 클라우어(R. Clower), 라이온후드(Axel Leijonhufvud)의 巨視的 不均衡論(macroeconomic disequilibrium), 그리고 新古典派의 均衡理論을 正面에서 拒否하는 Post-Keynesian의 反均衡理論에 대한 內容分析(content analysis)을 통해서 均衡·不均衡·反均衡理論의 分析方法과 方法論의 差異點을 比較 檢討함으로써 「現代經濟學」의 思潮를 概觀하려는 데 있다.

## II. 新古典派파라다임

### 1. 왈라스와 마아샬

周知하는 바와 같이 新古典派經濟學은 1870年頃 맹거, 왈라스 그리고 제본스가 제각기 獨立的으로 展開한 限界效用學說을 계기로 출발하게 되었으며, 1890年頃 限界生產力說이 登場함으로써 이른바 「限界革命」이 일어나게 되었지만, 市場均衡의 分析用具에 基礎하여 新古典派經濟學을 確立시킨 것은 왈라스의 一般均衡理論과 마아샬의 部分均衡理論이다. 그러나 오늘날 「新古典派파라다임」이라고 하면 주로 왈라스流의 一般均衡理論을 뜻하며, 애로우-드브뢰(Arrow-Debreu)모델은 이 理論의 標準理論이며, 혼히 modern neo-Walrasian theory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로빈슨女史가 캐임브리지大學에서 經濟學을 공부하기 시작한 時節(1921年)만 해도 마아샬

의 *Principles of Economics*(1890年)는 그 당시 西歐社會에서 마치 「聖書」와도 같았으며 월라스의 一般均衡理論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33, p. x]. 그러나 1929年 로빈슨女史가 케임브리지大學에서 가르치기 시작할 무렵에 스라파(Piero Sraffa)는 收穫遞增(費用遞減)과 完全競爭사이에 矛盾이 存在한다는 點을 들어 마아샬의 權威的 存在에挑戰하였다[64]. 그 후 이른바 마아샬經濟學의 外部性問題가 로빈슨-챔벌린(E. Chamberlin)의 獨占理論을 進展시키는데 貢獻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마아샬自身이 強調하였듯이 그는 英國의 正統派經濟學을 그 方法論에 있어서 계승하였다. 마아샬의 期間分析에서 產業의 固定設備投資가 一定하게 주어지는 短期分析方法은 리카아도가 農業經濟에 適用한 分析方法과 같다라는 點을 히스는 指摘하고 있다. 히스에 따르면 마아샬의 部分均衡分析方法은 리카아도로부터 그 힌트를 얻었으며, 마아샬의 「一時均衡」, 「短期均衡」, 그리고 「長期均衡」의 區分은 사실상 時間을 通해서 變動하는 過程에 있는 經濟에 靜學的 均衡分析을 適用하려는 目的으로 考察한 方法이라고 보고 있다[22, p. 51].

마아샬의 經濟學은 오늘날 「新古典派파라다임」에서는 脫落되었지만, 이 「파라다임」을 케인즈經濟學의 再解釋과 관련하여 改良하려는 라이昂후드의 「케인즈의 經濟學」(Economics of Keynes)의 不均衡經濟學에 있어서나 이 「파라다임」을 전적으로 拒否하는 Post-Keynesian의 方法論에서나 마아샬의 方法論은 部分的으로 再發見되고 있는 것이다.

마아샬은 經濟理論이란 精密한 理論(precise theory)이 될 필요가 없다고 強調했다고 한다[22, p.50]. 마아샬의 「代表的 企業」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幅闊은 「經濟生物學」(economic biology)의 비전은 오늘날 經濟現象을 物理現象이 아니라 生物現象, 또는 生態現象으로 把握하려는 새로운 비전에도 影響을 미치고 있다[27].

월라스의 「純粹經濟學要論」(*Éléments d'économie politique pure*, 1874~77年)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發展코오스를 보면 다음 두 가지의 흐름이 있다[72, pp.110—111].

하나는 월라스의 主著 第1版, 第2版의 初期業績인데, 여기에서는 生產係數의 固定性을 假定하고 있다. 이 原型이 카셀(G. Cassel)을 經由하여 월라스-카셀의 理論體系[11, ch.13]를 形成하게 되며, 效用理論을 捨棄한 簡略한 形態로서 월드(A. Wald)(1936年)에 의해 市場均衡의 「存在」(existence) 즉 均衡點의 存在問題가 研究對象이 되었다. 그 후 테온티에프의 產業聯關分析모델, 폰 노이만(1938年)의 多部門均衡成長모델, 線型計劃法 등 이른바 線型經濟學(linear economics)의 發展코오스를 보여준다.

또 하나의 흐름은 월라스의 後期業績인데, 主著 第3版 이후 限界生產力說을 導入한 理論體系를 말한다. 1930年 이후 히스, 사뮤엘슨, 드브뢰, 애로우, 하안(F.H. Hahn) 등에 의해

왈라스의 一般均衡理論의 精緻化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 흐름을 오늘날 「新古典派의 파라다임」이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新古典派의 經濟學이 「限界革命」을 거쳐 쿠운이 말하는 「正常科學」(normal science)으로 그 자리를 굳하게 되는 時期는 한 經濟學說史家의 見解를 빌리면 대체로 1920年代에서 1930年代로 보고 있다[43, p.208].

## 2. 一般均衡理論의 精緻化

周知하는 바와 같이 왈라스는 國民經濟의 모든 市場에서 需給을一致시키는 均衡價格이 存在한다는 命題를 均衡方程式과 未知數의 個數를 따져서 均衡價格의 決定에 카니즘을 說明하려고 하였다. 왈라스 이후의 發展코오스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指摘했듯이 왈라스-카셀體系를 중심으로 競爭的 均衡(competitive equilibrium)이 存在한다는 것을 왈드(1936年), 폰 노이만(1938年)이 論證하였다.

둘째, 히스는 *Value and Capital*(1939年)에서 종래의 왈라스의 一般均衡理論에서 均衡方程式과 未知數의 個數의 一致를 따져 均衡價格의 決定을 설명하는데서부터 與件이 變化하는 경우, 均衡價格의 變化方向을 宪明하려는 「比較靜學」(comparative statics) 혹은 「變化의 法則」을 「一時均衡分析」(temporary equilibrium analysis)의 테두리속에서 一般均衡理論을 精緻화시켰으며, 그 후 사뮤엘슨도 그의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1947年)에서 比較靜學의 테두리속에서 「動學的 安定條件」(dynamic stability condition)을 展開하였다.

세째, 50年代에 와서 왈라스의 一般均衡理論體系는 現代位相數學(modern topology)의 「不動點定理」(fixed point theorem)를 중심으로 一般均衡解의 存在問題가 嚴密한 論證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애로우-드브뢰모델이 展開되었다. 그 후의 發展코오스를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69, pp.107—123]. 애로우-드브뢰의 모델이 契機가 되어 競爭的 均衡解의 存在問題가 角谷靜夫(S. Kakutani), 브라우어(L.E.J. Brouwer)의 「不動點定理」를 가지고 맥肯지(L.W. Mckenzie), 二階堂副包(H. Nikaido), 게일(D. Gale)에 의해서 애로우-드브뢰모델이 보다 一般化된다. 一般均衡理論에서 均衡의 存在問題 다음에 오는 문제는 일단 均衡에서 離脱했을 때 또 다시 均衡으로 收斂하는 「安定條件」(stability condition)이다. 왜냐하면 「比較靜學」의 均衡分析에서 均衡의 存在뿐만 아니라 그 安定性이 論證되지 않는 한, 이 分析方法의 意義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見地에서 리아푸노프(A. Liapunov)의 “second” 또는 “indirect method”的 數學的 技法을 적용하여 均衡으로 收斂하는 過程에 대한 “tâtonnement stability”的 充分條件이 50年代 후반에 와서 애로우, 후비츠(L. Hurwicz), 하안, 根岸 隆(T. Negishi), 二階堂副包, 宇澤弘文(H. Uzawa)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한편 60年代初에

와서는 宇澤弘文, 하안, 根岸 隆 등에 의해서 non-Walrasian의 調整過程이 展開된다. 이 러한 段階를 거쳐 애로우-드브뢰型의 一般均衡모델은 嚴密한 數學的 形態로 新古典派 一般均 衡理論의 標準理論으로 그 자리를 굳하게 되는 것이다.

네째, 와인트라우브(E. Roy Weintraub)에 따르면 一般均衡理論에는 다음 두 가지의 흐 름이 있다[69, p.109]. 하나는 微視的 理論에 基礎한 알드-드브뢰-오만(R. J. Aumann)型의 純粹一般均衡理論(pure general equilibrium theory)이며, 또 하나는 純粹理論의 基礎에다 貨幣·時間·不確實性·期待 등의 經濟變數에 대해 特殊한 假定을 設定하여 巨視經濟를 分析할 수 있도록 一般均衡理論을 擴張시킨 랑게-파틴킨-클라우어(Lange-Patinkin-Clower)의 理論的 基礎가 있는데, 와인트라우브는 應用一般均衡理論(applied general equilibrium theory)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巨視經濟學의 微視的 基礎(microfoundation of macroeconomics)라고 부르고 있다.

다섯째, 新古典派 成長모델인데, 代表的인 것으로 솔로우(R.M. Solow)의 모델을 들 수 있다. 이 모델도 方法論的 見地에서 보면 純粹一般均衡理論의 基礎에 特殊한 假定을 設定하여 成長問題를 分析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이 대체로 보아 100여년의 歷史를 지닌 新古典派經濟學 중에서도 正統派의 均衡理論이며, 오늘날 「新古典派파라다임」이라고 하면 이러한 新古典派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 III. 巨視經濟學의 微視的 基礎

애로우에 따르면 애로우-드브뢰모델의 이론과 modern neo-Walrasian theory에서 不充分한 形態로 남아 있는 問題들로 ① 微視理論과 巨視理論의 綜合, ② 不完全競爭의 體系的導入, 그리고 ③ 去來費用(transaction costs)의 考察 등을 들고 있으며[1, p.734], 이 러한 側面에서 최근 애로우-드브뢰모델의 擴張이 이루어지고 있다[25, 25a].

그 중에서도 微視理論과 巨視理論의 綜合問題는 케인즈經濟學을 再解釋하는데 있어서나 스태그플레이션의 「變則性」을 解明하는데 있어서나 매우 시급한 課題라고 볼 수 있으며, 많은 業績들을 찾아볼 수가 있지만, 케인즈經濟學을 왈라스流의 一般均衡理論의 基礎 속에서 均衡經濟學(equilibrium economics)으로 把握하느냐, 不均衡經濟學(disequilibrium economics)으로 把握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의 다른 解釋이 登場한다. 이 두 가지의 分析方法을 比較検討하기 위해서 우선 케인즈의 『一般理論』(1936年)이 公刊된 直後에 있어서의 「케인즈革命」

(Keynesian Revolution)과 「反革命」(Keynesian Counter-revolution)의 歷史를 考察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 1. 케인즈革命과 反革命의 均衡經濟學

클라우어와 라이온후드는 오늘의 케인즈經濟學에 대한 多岐多樣하고 마치 聖書의 한 句節 한 句節을 따지는 식의 케인즈解釋에 대해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6, p.182]. 즉 「케인즈의『一般理論』이 公刊된지 40여년의 歲月이 흘러갔다. 그 동안 우리들은 <케인즈는 무엇을 말했는가>, <케인즈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케인즈는 정말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그리고 극히 최근에 와서 <케인즈가 정말로 말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로 무엇이었느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 왔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論爭이 계속되고 있다.」

根岸 隆도 지적하고 있듯이 初期의 「케인즈革命」의 意義는 新古典派經濟學에서 大前提가 되어 있는 完全雇傭均衡의 自律性을 批判하고, 「非自發的 失業」을 수반하는 「過少雇傭均衡」이 成立하는 可能性을 주장했다는 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49, p.20]. 이러한 케인즈의 「過少雇傭均衡」의 存立을 최초로 論證한 것으로 클라인(L.R. Klein)의 「貯蓄・投資의 不一致」[31]와 모디글리아니(F. Modigliani)의 「流動性陷阱」[45]의 論議를 들 수 있다.

그리나 周知하는 바와 같이 1937年 힉스의 論文은 왈라스流의 一般均衡理論의 泰斗리 속에서 케인즈의 理論體系와 新古典派의 理論體系를 모두 特殊한 경우로서 内包시켰으며[20] 한센에 의해 IS-LM曲線모델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17, ch.v]. 그 후 이것을 原型으로 하는 發展을 사무엘슨은 「新古典派綜合」(neoclassical synthesis)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學派의 形成過程은 케인즈의挑戰을 받고 再構築된 新古典派經濟理論의 泰斗리 속에 「케인즈革命」을 内包시키는 過程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新古典派 케인즈經濟學의 均衡經濟學을 사무엘슨은 「主流經濟學」(main-stream economics)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經濟學은 2次大戰 이후 1960年代末 까지 先進資本主義經濟가 줄곧 成長의 原動力を 發揮한데서 그 實證의 뒷받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케인즈의挑戰을 받고 再構築된 幅闊은 新古典派經濟理論이란 바로 와인트라우브가 말하는 랑게—파틴킨—클라우어의 應用一般均衡理論이라고 볼 수가 있다.

1944年 랑게는 처음으로 케인즈의 「非自發的 失業」의 概念이 왈라스流의 一般均衡理論의 泰斗리 속에서 解明되어야 한다고 指摘하였다[38, p.1]. 뒤이어 1956年 파틴킨은 貨幣理論을 一般均衡理論의 泰斗리 속에 도입하여 實質現金殘高效果를 갖고 ①生產物市場, ②貨幣市場, ③勞動市場, 그리고 ④債券市場의 네個市場을 中心으로 巨視理論體系를 展開하

였고[53], 이것이 오늘날 「新古典派綜合」의 基礎가 되어 있다. 이러한 均衡經濟學을 최근 히스는 「正統派케인즈經濟學」(Orthodox Keynesian Economics)[23, p.4], 와인트라우브(S. Weintraub)는 「Hicksian Keynesianism」[70, p.45]이라고 부르고 있다.

파틴킨모델의 特徵을 方法論的 見地에서 보면 와인트라우브가 指摘하고 있듯이, 靜態的一般均衡理論(static general equilibrium theory)의 태두리 속에서 新古典派의 價值理論과 貨幣理論을 統合하려는 試圖였다. 따라서 모델의 特徵은 無時間(timeless)의이며, 比較靜學의 均衡이 成立한다는 前提가 뒤따르고 있다[69, p.4]. 파틴킨의 경우, 왈라스의 法則이 成立하는 한 ① 生產物市場, ② 勞動市場, ③ 債券市場에서 均衡이 成立하면 나머지 ④의 貨幣市場에서도 반드시 均衡이 成立해야 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失業은 存在할 수가 없다. 그래서 「非自發的失業」의 存立은 결국 貨幣賃金의 硬直性에서 온다고 보았다[54].

히스에서 파틴킨, 그리고 모디글리아니[46]에 이르는 이른바 新古典派의 케인즈解釋에 있어서는 케인즈와 新古典派의 對立은 原理의 對立이 아니라, 앞에서 言及한 네個 市場에서 體系를 支配하는 彈力性, 伸縮性 그리고 調整速度 등, 이른바 파라미터의 評價問題의 差異로 歸着되는 것이다[7].

「新古典派綜合」이란 결국 新古典派의 價值·價格理論을 尊重하면서 「케인즈革命」이 貢獻한 國民所得決定의 構想을 新古典派의 體系속에 同化시키려는 것이며, 政策的 側面에서 보면 財政·金融政策의 手段을 통해 經濟安定政策의 理念을 定着化시키려는데 있는 것이다.

케인즈는 『一般理論』에서 「政府當局의 政策으로 完全雇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후부터 新古典派의 價值·價格理論이 復活될 것이다」라는 趣旨를 말했다. 「新古典派綜合」은 이러한 케인즈의 趣旨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新古典派 케인지안들은 有效需要의 規制策을 강력히 推進하는 것을 主張하는데 있어서는 케인지안이지만, 그 결과 現實의 經濟가 完全雇傭狀態를 이루게 되어 維持되는 경우, 그때부터 왈라스나 마아샬의 理論이 쏙트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新古典派綜合」의 微視理論과 巨視理論의 綜合에 대해서 애로우를 위시하여 기타의 批判的 見解가 있다는 點을 指摘해 둔다[1, p.735]. 애로우는 新古典派의 一般均衡理論의 태두리는 基本的으로 相對價格의 理論이며, 이 속에 貨幣理論을 도입하여 微視理論과 巨視理論을 「참으로 統合」(genuine synthesis)하는데 成功한業績은 지금까지 없다는 것이다[2, pp.2-3].

끝으로 「新古典派綜合」의 「正統派케인즈經濟學」에 대해 프리드만(M. Friedman)을 중심으로 하는 通貨主義論者(monetarist)의 反革命이 있다. 프리드만의 「恒常所得假說」, 「新

貨幣數量說」等은 「正統派經濟學」에 대한 反革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側面에 관한論議는 존슨(Harry G. Johnson)의 論文에 맡기기로 한다[28].

## 2. 反反革命의 不均衡經濟學

「正統派 케인즈經濟學」은 靜態的一般均衡理論의 테두리속에서 짜여져 있으며, 따라서靜態的均衡分析에 基礎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均衡分析에 批判이 가해지기 시작한다. 그 까닭은 케인즈가 傳達하려는 眞意는 不均衡狀態아래서 把握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主張이 나오게 되는 理由를 와인트라우브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68, p.5]. 첫째, 케인즈의 「非自發的 失業」의 概念은 競爭的 市場모델과 不一致하기 때문에 케인즈는 經濟理論을 進展시키지 못하였다는 主張이며, 「케인즈革命」을 否定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둘째, 新古典派의 一般均衡理論은 「케인즈革命」의 成果를 同化시키지 못하였다는 主張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엇갈린 見解가 오래동안 지속되어 왔다.

1965年 클라우어는 파틴킨이 微視的 不均衡(microeconomic disequilibrium)의 테두리속에서 分析한 케인즈의 「非自發的 失業」의 問題를 「再決定假說」(dual decision hypothesis)을 가지고 巨視的 不均衡理論의 테두리 속에서 케인즈經濟學을 해석하게 되었지만, 어디까지나 윈스터스流의 一般均衡理論의 테두리속에서 不均衡의 問題를 취급하였다[5]. 한편 바로(R. J. Barro), 그로스만(H.I. Grossman)은 클라우어의 家計에 관한 「再決定假說」과 파틴킨의

表1 케인즈『一般理論』에 대한 「正統派케인즈經濟學」과 라이온후드의 「케인즈의 經濟學」의 差異點

	正統派케인즈經濟學	라이온후드의 「케인즈의 經濟學」
1. 勞動市場에서의 勞動者의 「貨幣錯覺」(money illusion)	1. 存在한다.	1. 아니다.
2. 勞動組合의 立場	2. 勞動組合이 貨幣賃金의 引下를 反對한다.	2. 아니다.
3. 貨幣賃金의 伸縮性	3. 貨幣賃金의 硬直性을 假定한다.	3. 아니다.
4. 貨幣賃金에 대한 見解	4. 貨幣賃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다.	4. 아니다.
5. 利子率에 대한 見解	5. 利子率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다.	5. 그렇다.
6. 流動性陷阱(모디글리아니의 경우)	6. 「流動性陷阱」을 認定한다.	6. 아니다.
7. 投資의 利子率彈力性問題	7. 投資의 利子率非彈力性을 假定한다.	7. 아니다.
8. 貯蓄의 利子率彈力性問題	8. 貯蓄의 利子率非彈力性을 假定했다.	8. 아니다.
9. 貯蓄·投資의 不一致問題(클라인의 경우)	9. 假定했다.	9. 아니다.
10. 貨金·價格의 下落이 實質現金殘高에 미치는 效果(파이어만效果)	10. 假定했다.	10. 그렇다.
11. 純實質資產(real net worth)變化가 消費需要에 미치는 效果	11. 假定했다.	11. 그렇다.
12. 純資產(net worth)의 貨幣資產構成(money component)의 實質價值의 變化가 總需要에 미치는 效果	12. 假定했다.	12. 그렇다.

企業에 관한 「再決定假說」[53, ch.13]을 簡單한 一般均衡모델 속에서 統合을 試圖하였다[3].

1968年 라이온후드는 클라우어의 不均衡의 理論을 土臺로 하여 「正統派케인즈經濟學」(Keynesian Economics)과 「케인즈의 經濟學」(Economics of Keynes)은 別個의 것이라는 再解釋을 내리게 되었다. 라이온후드는 케인즈의 『貨幣論』(A Treatise on Money, 1930年)과 『一般理論』(1936年)을 한데 묶어서 研究하는 이른바 「doctrine-historical approach」를 취하고 있다[40, p.9]. 라이온후드가 主張하는 「케인즈의 經濟學」과 「正統派케인즈經濟學」의 差異點을 要約해서 表示하면 表1과 같다[41, p.21].

方法論的 見地에서 라이온후드가 주장하는 「케인즈의 經濟學」에서 특히 우리의 關心을 끌게 하는 것은 마아샬의 分析用具를 使用하고 있다는 點이다.

#### IV. Post-Keynesian의 反均衡理論

##### 1. Post-Keynesian의 範圍

우선 Post-Keynesian의 定義부터 내리면 로빈슨女史를 중심으로 하는 一聯의 科學者集團을 말하며, 로빈슨의 理論體系를 「새로운 파라다임」(a new paradigm)으로 보고, 이 파라다임의 加工作業(mopping-up operations)을 하면서 ① 케인즈의 理論 속에 殘存하고 있는 新古典派의 要素를 철저하게 拂拭시키고, ② 칼레키(M. Kalecki)의 業績을 케인즈에 못지않게 높이 評價하고, ③ 스라파의 業績에서 緣由하는 價值理論에 基礎하여 「새로운 파라다임」을 古典派의 政治經濟學의 再建을 통해 摸索하고 있는 學派라고 볼 수 있다.

한편 Post-Keynesian은 이 科學者集團 밖에서는 「新케인즈派」(neo-Keynesian)라고 일반적으로 불리우며, 최근에 와서는 Fundamentalist Keynesian이라고 부르는 學者도 있다[8]. 한편 크레겔(J.A. Kregel)과 이취너(A.S. Eichner)는 Post-Keynesian과 마르크스主義者들을 구별하기 위해 마르크스主義者들은 스라파의 業績(*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Cambridge Univ. Press, 1960)을 가장 基本的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흐름을 「新리카아도學派」(neo-Ricardian)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한다[12, p.1293].

오늘날 新古典派 파라다임에 正面으로 對立하고 있는 學派가 英國의 케임브리지大學을 중심으로 하는 「現代케임브리지學派」이며 ① 로빈슨, 크레겔을 중심으로하는 Post-Keynesian 그룹, ② 칼도, 파지네티(L. Pasinetti)를 중심으로 하는 그룹, 그리고 ③ 스라파의 價值理論 등, 이 學派속에서도 세 가지의 分派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新古典派 파라다임이 基礎하

고 있는 한, 限界生產力說을 批判하고, 賃金・利潤이 決定되는 過程이 直接的으로 勞動者와 經營者의 交涉力에 의존한다는 새로운 分配理論을 提唱하는데 있어서는 그 見解를 같이 하고 있다. 크레겔도 지적하고 있듯이 로빈슨女史와 칼도—파지네티 사이에는 ① 方法論, ② 價格決定의 메카니즘, ③ 利潤率決定, ④ 技術進步의 分析, ⑤ 資本의 評價問題, 그리고 ⑥ 成長過程의 安定性 등 여러가지 問題들에 대해서 그 見解를 달리하고 있다[33, p.193].

이른바 「케임브리지革命」(Cambridge Revolution)의 成果에 대해 회의적인 論評을 가하고 있는 블라우(M. Blaug)에 따르면 최근, 이 學派에 속하는 經濟學者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點을 지적하고[4, pp.18—19], 그 業績으로 크레겔[32, 33], 라임즈(T.K. Rymes)[56], 하아코트(G.C. Harcourt)[18, 19], 나폴레오니(C. Napoleoni)[48], 도브(M. Dobb)[9] 그리고 로빈슨과 이트웰(J. Eatwell)의 共著[61]를 들고 있다.

항가리의 經濟學者 코네이(J. Kornai)는 최근 Post-Keynesian의 論議를 數理經濟學의 측면에서 支援하고 있다. 그의 著書『反均衡의 經濟學』은 結果的으로 Post-Keynesian의 논의를 뒷받침하게 되어 로빈슨, 크레겔도 코네이를 Post-Keynesian으로 받아들이고 있다[36, 序文]. 한편 일찌기 新古典派 成長모델에서 「two-sector 모델」을 전개한 日本의 宇澤弘文도 최근 그의 業績으로 미루어 보아 Post-Keynesian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美國의 와인트라우브(Sidney Weintraub)는 최근 30個에 달하는 여러 學者들의 論文을 편집하여 論文集을 公刊하였는데 이것을 보면 Post-Keynesian의 영향은 美國은 물론, 汎世界的으로 번져가고 있는 느낌을 가지게 한다[70].

Post-Keynesian들이 주장하는 「새로운 파라다임」의 내용을 간추리기에 앞서 이 理論이 등장하게 된 時代의 背景과 「現代經濟學」에서 차지하는 位置를 點檢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川口弘(H. Kawaguchi)는 케인즈의 『一般理論』(1936年)에 대한 評價의 變遷過程을 다음과 네 가지 段階로 나누어서 보고 있다[14, p.2].

첫째 段階(1936年～48年)는 新古典派의 舊勢力에 의한 抵抗과 新勢力에 의한 受容時期, 즉 「케인즈革命」의 침투기라고 보고 있다.

둘째 段階(1948年～56年)는 케인즈 『一般理論』의 精緻化, 長期化, 貨幣政策의 復歸, 計量經濟學的・統計的 檢證時期, 그리고 「新古典派綜合」의 擡頭時期로 보고 있다.

세째 段階(1956年～69年)는 「新古典派綜合」의 反革命의 勝利를 宣言하는 時期이며, 한편으로 「新古典派綜合」主流經濟學에 대한 通貨主義者の 反革命이 일어나는 時期로 보고 있다.

네째 段階(1970年 以後)는 스태그플레이션, 國際通貨體制의 動搖, 石油波動, 構造的 不況

과 成長率鈍化 등으로 「新古典派綜合의 自信喪失과 Post-Keynesian의 活動強化가 이루어지는 時期」라고 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区分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보아 케인즈經濟學에 대한 評價의 變遷過程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한편 根岸 隆는 「現代經濟學」의 흐름을 經濟學者를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51, p.17]. 表2를 보면 Post-Keynesian의 位置를 알 수 있다.

表2. 經濟學者를 중심으로 본 「現代經濟學」의 潮流

區 分	學 者 名
1. Monetarist; Neo-Classical	시카고大學의 브리드만을 중심으로 하는 通貨主義者들
2. Neo-Classical Synthesis	사무엘슨, 솔로우, 파틴킨, 힙스, 토빈 등의 新古典派
3. Keynes's School	해로드, 리너, 와인트라우브(Sidney Weintraub)
4. Post-Keynesian	로빈슨, 칼도, 파지네티 등을 指導者로 하는 케임브리지大學의 「新케인즈派」. 한편 칼레카의 흐름을 포함.
5. Socialist·Radical	갈브레이드로부터 radical economists를 포함.

## 2. 파라다임의 內容

Post-Keynesian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파라다임」은 로빈슨女史의 1952年의 業績[57]과 1956年的 業績[58]에 基礎하고 있다[12, p.1293].

周知하는 바와 같이 케인즈의 『一般理論』(1936年)을 최초로 長期化한 것은 해로드의 成長모델이었으며, 이것에 對立理論으로 등장한 것이 新古典派의 成長모델이었다. 1952年の로빈슨女史의 業績은 女史가 본 케인즈 『一般理論』에 대한 一般化였으며, 1956年に 『資本蓄積論』으로 結實되었던 것이다. 그 후 로빈슨女史의 資本蓄積論(經濟成長論)과 솔로우를 위시하여 사무엘슨 등 美國 MIT의 新古典派 사이에서 一聯의 論爭이 벌어졌으며, 흔히 케임브리지(英國) 對 케임브리지(美國)論爭이라고 불리우고 있다[18].

論爭의 問題點을 보면 ① 資本의 測定問題, ② 集計的 生產函數에 관한 問題, ③ 利潤率의 決定方式, 그리고 ④ reswitching論 등을 들 수 있다. 이 問題들은 모두 新古典派 成長모델에 대한 批判에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新古典派의 成長모델은 「單一財모델」(one commodity model)이며, 生產要素의 「可塑性」(malleability)을 假定하여 新古典派 파라다임의 基本命題인 資本主義經濟의 安定的인 均衡成長의 存在가 想定되어 있다. 한편 新古典派의 경우, 完全豫見(perfect foresight)의 均衡 경路를 想定하고, 新古典派의 集計的 生產函數를 前提하면, 이것으로부터 資本의 限界生產力を 구할 수가 있으며, 그 結果 利潤率이 결정된다. 그래서 新古典派의 경우, 價格理論의 一分野로서 分配理論이 치리된다. 그러나 로빈슨女史의 경우, 問제의 핵심은 利潤率의 決

定에 있다. 로빈슨女史에 따르면 利潤率은 資本蓄積率에 따라 決定된다는 動學的 理論을 전개하였으며, 그 決定樣式이 케인즈流의 貯蓄·投資關係에 基礎하고 있다는 뜻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新케인즈派」라고 부르고 있다.

Post-Keynesian들은 이러한 利潤率의 決定樣式을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보고 이 파라다임에 加工作業을 하고 있다. 表3은 이취녀와 크레겔의 共同論文에 게재된 Post-Keynesian의 理論과 新古典派理論의 差異點을 표시한 것이다[12, p.1309].

表3 新古典派와 Post-Keynesian의 差異點

側面	Post-Keynesian 理論	新古典派理論
動學的 特性	두드러지게 鈍化하는 長期的 成長率의 頂點에 있어서 明確한 循環的 패턴을 假定	無成長 또는 成長軌道로부터 一時의 乖離 이외의 乖離를 미리除外시킨 定常의 擴張(steady-state expansion)
所得分配에 관한 說明	殘餘所得受領者와 非殘餘所得受領者間의 歷史的 所得分配를 規定하는 制度的 諸要因, 그리고 成長率의 變化에 依存하는 分配의 變化	可變的인 生產要素投入과 이를 生產要素의 限界生產力만에 의해서 說明되는 所得分配
利用可能하다고 想定되는 情報量	過去만이 既知이며 將來는 不確實(歷史的 時間)	모든 可能한 諸事象에 관해서 完全豫見(complete foresight)이 存在한다.
分析이 完成되었다고 생각하기 以前에 充足되어야 할 諸條件	自由裁量의 所得(discretionary income)은 自由裁量의 支出(discretionary expenditure)과 일치해야 한다.	모든 市場은 個別市場별로 需給의 一致를 通해서 超過需要가 除去된다.
微視經濟學의 基礎	상당히 獨占的 要因을 가진 不完全市場	모든 微視的 單位가 價格受容者(price-taker)로서 活動하고 있는 完全市場
理論의 目的	經驗的으로 觀察된 것으로서의 現實世界(real world)를 說明(코네이의 反均衡經濟學)	現實世界가 當該모델에 近似하다고 하면 社會의 最適性(social optimality)이 達成된다는 것을 說明

이 表를 보면 두 理論의 差異點을 比較할 수가 있다. 즉 ① 經濟成長의 動學問題, ② 成長에 따른 分配問題, ③ 케인즈的 制約條件, 그리고 ④ 巨視經濟學의 微視的 基礎 등이다. ①에서 新古典派의 均衡理論은 論理的 時間(logical time)概念이 도입되어 있지만, Post-Keynesian의 경우, 歷史的 時間(historical time)concept이 도입되어 있다. ②의 경우, Post-Keynesian은 新古典派의 限界生產力說 대신 分配率이 企業의 資本蓄積率에 의존한다는 칼도-파지네티의 巨視的 分配理論이 그 基礎를 이루고 있다. ③의 問題는 貯蓄이 投資를 결정한다는 新古典派의 思考方法을 拒否하고 投資가 케인즈가 말하는 企業의 “animal spirit”的 蓄積意慾에 의존한다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④의 問題는 칼데키流의 獨占理論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full-cost pricing의 mark-up pricing이 Post-Keynesian들의 巨視經濟學의

微視的 基礎가 되어 있는 것이다.

### 3. 不確實性과 케인즈革命

케인즈가 新古典派經濟學의 基礎하고 있는 벤담流의 功利主義를 批判하는 知性主義者였느냐에 대한 與否는 經濟思想史家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케인즈의 『一般理論』公刊直後의 講義(1937年) 또는 論文[73]에 의거하여 Post-Keynesian들은 케인즈가 現實經濟의 不確實性(uncertainty)과 그 밑에서 여러가지 期待(expectation)의 變化가 不可避한 現實世界에서 現實의 時間, 즉 歷史的 時間의 흐름속(長期的 期待)에서 한 期間(短期的 期待) 중에 무엇이 일어날 것이냐를豫測할 수는 없으며,任意의 期待狀態가 주어진다고 假定하면 무엇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만을豫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Post-Keynesian들은 新古典派의 均衡成長經路에 대한 分析을 批判하고, 「經濟學의 分類理論」(classificatory theory of economics)의 方法論을 채택하고 있다[34, p.217].

로빈슨女史가 『異端의 經濟學』의 日本語版序文에서 케인즈革命 이전에 正統派經濟學은 均衡의 神話에 의해支配되어 왔으며, 2次大戰 이후에는 成長의 神話가支配해 왔다고 말하고 「케인즈革命」은 「人間의 生活이 歷史的 時間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돌이킬 수 없는 過去와 未知의 未來 사이에서 언제나 움직이고 있는 瞬間에 人間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認識시켰다」[59, p.1]고 말할 때 케인즈가 「期待」(expectation)라는 分析用具를 갖고 不確實性의 現實world를 分析한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美國의 Post-Keynesian인 페일리드슨(Paul Davidson)도 케인즈의 『一般理論』의 意義를 「케인즈가 새로운 <파라다임>을 전개하였으며, 그 속에서 不確實性, 歷史的 時間, 貨幣 그리고 貨幣賃金의 契約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74, p. 276]. 이러한 뜻에서 케인즈의 貨幣經濟理論이란 本質的으로 無時間, 無空間의 靜學理論의 性格을 지닌 왈라스流의 一般均衡理論과는 원래 부합될 수 없다는 것이 Post-Keynesian들의 일치된 持論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

### 4. 反均衡의 經濟學

코네이는 항가리의 經濟計劃을 담당하게 되어 數理經濟學의 모델을 研究하고 있던 중, 既存의 모델로서는 애로우-드브뢰의 一般均衡理論 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 모델이 現實의 經濟를 分析하는데 많은 弱點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反均衡理論의 태두리속에서 經濟시스템理論을 전개하게 된다. 그러나 코네이도 강조하고 있듯이 그의 反均衡理論의 시스템理論은 現實의 經濟를 分析할 수 있는 理論開發을 위한 方向提示이며, 일종의 中間生產物에 不過하다.

코네이는 애로우-드브뢰의 一般均衡理論에 設定되어 있는 12個의 基本假定, ① 靜態性과 定常性, ② 組織集合의 不變性, ③ 生產者와 消費者만의 存在, ④ 財貨集合의 不變性, ⑤ 同時的 機能, ⑥ 生產集合의 불특性, ⑦ 利潤極大化, ⑧ 消費者의 效用極大化, ⑨ 生產集合, 消費集合, 그리고 選好順序의 不變性, ⑩ 價格情報의 흐름의 單獨性, ⑪ 市場關係의 無名性, 그리고 ⑫ 不確實性의 缺如 등에 대해 그 非現實性을 차례로 批判하지만 그 중에서도 「原罪」는 ⑦과 ⑧에 있다고 한다[36, p.36].

코네이의 持論에 관해서는 그의 主著에 밑길 수 밖에 없는 노릇이지만 그의 反均衡理論은 다음 두 가지 뜻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一般均衡理論을 批判하지만 數理經濟學의 技法 그 自體를 批判하는 것은 아니며, 애로우-드브뢰모델이 現實의 經濟를 分析하는데 있어서 無力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뜻은 市場均衡의 概念을 批判하고, 그 대신 「壓力」(pressure)과 「吸引」(suction)이라는 새로운 分析用具를 가지고 市場均衡에 대한 코네이의 獨特한 理論을 전개하고 있다[36, ch.19]. 「壓力」과 「吸引」의 概念裝置가 뜻하는 것은 결국 現實의 經濟는 均衡으로 향하는 것 보다 不均衡的인 發展을 거듭한다는 것이다. 經濟理論의 이른바 不均衡論을 經濟시스템의 制御裝置 속에서 援用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코네이의 著書를 論評하는 가운데서 하안은 "What the book suffers from is its title and so its adversary"라고 말하고 있다[16, p.330].

코네이에 따르면 「經濟理論이란 經驗科學이며, 그 目標는 現實의 經濟構造를 解明하는데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36, p.13]. 코네이의 經濟시스템의 構成要素는 生產, 消費, 管理, 情報에 관한 여러가지 機關이 있으며, 각機關自體가 또한 組織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組織은 「制御單位」와 「實物單位」로 構成되어져 있어서 理論體系가 階層的으로 構成되어 있다. 그리고 그 階層의 「全體와 部分」의 相互作用을 分析함으로써 經濟시스템을 콘트롤하고, 디자인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다[36, p.xxiii]. 이렇게 볼 때 經濟學을 純粹理論으로 파악하려는 一般均衡理論과 現實世界를 分析하는 經驗科學으로 파악하려는 코네이의 接近方法의 差異點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Post-Keynesian과 新古典派 理論의 差異點을 收錄한 表3을 이취너와 크레겔은 補充說明하면서 「最適意思決定律」(optimal decision rule)에 基礎한 코네이의 經濟시스템이 Post-Keynesian의 理論體系를 援用할 수 있다는 點을 강조하고 自然科學, 특히 物理學의 均衡概念에 基礎한 一般均衡理論과는 다르다는 點을 강조하고 있다[12, p.1310].

코네이의 『反均衡의 經濟學』은 1971年에 公刊되었지만, 舊가리語의 草稿는 1967年頃에 執筆했다고 한다. 1975年 이 著書의 日本語版의 序文에서 코네이는 「本書의 執筆當時 나는

「聯合軍」陣營이 보다 幅넓게 이루어져 있다는 事實을 충분히 認識하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그 동안의 Post-Keynesian의 業績을 높이 評價하고는 있지만 이 學派의 諸流派가 新古典派經濟學에 대한 批判에 있어서는 그 見解를 같이 하고 있으나, 어떤 統一된 理論體系가 確立되어 있지 못하다는 點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 V. 均衡理論의 方法論

### 1. 新古典派의 效率性

新古典派 파라다임이 提示한 基本的인 命題는 資本主義市場에서 各個人이 個別의 으로 自己의 利益을 利己的으로 追求하면, 이것이 주어진 所有權의 配分 밑에서 가장 效率的인 結果를 招來한다는 것이며, 新古典派 經濟學은 「파레토最適」이라는 뜻에서 이러한 結果를 가져오는 諸條件을 論理的으로 證明하는데 貢獻해 왔다.

이러한 新古典派 經濟學의 基本的인 方法論은 결국 로빈스(Lionel Robbins)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로빈스에 따르면 經濟科學(economic science)의 方法論이란 주어진 目的 을 達成하기 위해 여러가지 稀少資源을 어떻게 配分하며, 어떠한 制度的, 技術的手段을 選擇해야 하느냐의 問題를 따지며, 여러가지 目的과 手段의相互關係를 分析하지만 目的選擇에 대한 價值判斷에 관해서는 經濟學이 關與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效率性的 基準 밑에서 資源配分을 評價하는 그 自體가 事實은 어느 特定한 價值判斷에 基礎하고 있다」고 宇澤弘文는 主張한다[67, p.89]. 애로우도 新古典派의 一般均衡理論의 태두리 속에서 失業問題나 所得分配의 隔差問題를 解明할 수 없다[2, p.2]고 한다.

### 2. 比較靜學과 一時的 均衡分析

왈라스가 展開한 一般均衡理論에서는 市場의 超過需要를 除去하는 均衡價格이 存在한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 價格을 形成하는 實體에 관해서는 明示的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均衡價格의 安定性에 관해서는 超過需要에 따라 價格을 調整하는 「競賣人」(auctioneer)을 想定하고 있을 뿐이다.

왈라스의 경우, 「競賣人」을 想定하기 때문에 生產·交換·所得形成, 그리고 消費의 全過程이 瞬間的으로 完了되며, 그동안에 전혀 時間的 經過를 必要로 하지 않으며, 모든 財貨와 用役에 대한 需給이 一致하는 價格體系가 成立한다. 이러한 調整過程을 왈라스의 摸索過程(Walrasian tâtonnement)이라고 부른다. 왈라스의 一般均衡理論의 이러한 性格을 鮮明

하게 解說한 것 이 힉스의 「週」(week)의 概念이 다[21, pp.122—127].

「週」의 概念은 經濟가 變動하는 過程에서 時間을 比較靜學의 테두리 속에서 취급하려는 것이다. 이 分析을 위해 힉스는 「一時的 均衡」(tempoary equilibrium)의 分析方法을 제시하였다. 宇澤弘文는 이러한 新古典派의 均衡分析을 無時間性(timeless)과 可塑性(malleability) 혹은 可變性으로 特徵지우고 있다[67, p.62].

「週」의 概念은 一聯의 經濟活動이 完了되는 狀況을 뜻하며, 그 期間(歷史的 期間이 아님)에 均衡價格體系를 摸索(tâtonnement)해 가는데 상당히 긴 時間이 所要되지 않으면 不可能하다는 過程이 포함되어 있으며, 生產要素를 여러가지 用途에 轉換해서 모든 生產過程이 完了된다는 것을 意味한다. 한편 消費는 生產過程이 完了된 다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短期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 「週」와 「週」사이에는 外的 條件이 不變하다는 뜻에서 또한 마아샬의 短期를 想定하고 있다. 이렇게 「週」의 概念에는 한편으로 長期的 調整過程이 모두 完了하는 期間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時間이나 環境條件이 전혀 變化하지 않는 短期的 期間을 의미한다. 이것은 원래 왈라스의 一般均衡理論에 在內하는 두 가지의 모순되는 측면이라고 한다. 長期의 定常狀態와 短期均衡 사이의 모순을 解消시키기 위해 生產要素의 「可塑性」을 假定함으로써 生產過程, 市場均衡의 過程이 瞬間的으로 完了된다는 新古典派의 理論前提가 假定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뜻에서 必然의이라고 로빈슨女史[59, ch.2]나 宇澤弘文는 주장하고 있다[66, pp.18—19].

요컨대 新古典派의 均衡理論에서 比較靜學을 前提로 하는 一時的 均衡分析에 있어서는 이른바 論理的 時間(logical time)만이 存在한다는 批判은 이러한 뜻에서 이루어지는 批判이다.

### 3. 新古典派와 論理實證主義

佐藤隆三(R. Sato)에 따르면 論理實證主義(logical positivism)은 1920年代와 1930年代에 「비인學團」(Der Wiener Kreis)이라고 불리우는 哲學者, 科學者, 數學者들의 그룹에 의해 이루어진 哲學運動이라고 한다[62, pp.181—211]. 論理實證主義가 經濟學方法論에 영향을 미친 過程을 간추려 보기로 하자. 원래 포퍼(K.R. Popper)는 「비인學團」의 멤버는 아니었지만, 이 學團의 代表 카나프(R. Carnap)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포퍼는 그의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1939年)에서 科學的 分析에 있어서 形而上學的 要因을 排除해야 하며, 主觀的 經驗보다 觀察可能한 物理的 事象을 客觀的으로 檢證할 수 있다는 物理主義(physicalism)를 주장했다고 한다. 포퍼에 따르면 自然法則에 대한 完全한 檢證(verification)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經驗的・認識의 意義의 基準을 檢

證可能性(verifiability)에서 確證可能性(confirmability) 또는 테스트可能성(testability)의 基準을 주장하였다고 한다. 특히 테스트可能성의 基準은 觀察可能한 事象에 의해 確證可能하다는 뜻에서 「操作主義」(operationalism)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포퍼는 經驗科學과 기타 體系(數學, 論理學 그리고 形而上學의 體系)를 區分하고 境界設定의 基準을 마련하였는데 이 基準이 바로 反證可能성(falsifiability)의 基準이다.

佐藤隆三에 따르면 「비인學團」멤버의 대부분은 美國으로 亡命했고, 美國의 實用主義哲學이나 操作主義는 論理實證主義와 비슷한 點이 있으므로, 이 主義가 美國의 科學哲學에 침투하여 뿌리 깊게 定着되었고, 美國의 經濟學者들의 方法論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포퍼는 1946年 하이에크(F. von Hayek)의 도움을 얻어 倫敦大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고 그의 反證主義(falsificationism)의 方法論을 經濟學方法論에 최초로 導入한 學者는 허치슨(T.W. Hutchison)이었다고 한다[26]. 프리드만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그의 實證經濟學(positive economics)의 方法論에서 經濟理論에 設定되는 假定의 現實性은 2次的이며, 理論을 가지고 얹어지는豫測如何가 가장 重要하다고 주장했다[13, p.14]. 즉 經濟理論의妥當性은 그豫測能力에 달려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方法論은 애로우가 지적하고 있듯이 포퍼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2, p.4].

「비인學團」의 맹거(K. Menger)를 中心으로 하는 「數學談話會」(Mathematischen Kolloquium)도 論理實證主義運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 會合에서 數理經濟學의 劃期的인 業績이 나왔다. 佐藤隆三에 따르면 맹거(K. Menger)는 社會現象을 分析하는데 論理的·數學的分析을 適用하려고 努力하였다고 한다. 맹거(K. Menger)는 命題 사이의 關係를 檢討하는 것은 純粹히 論理的이며 經驗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다고 主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思考方式은 쿠프만스(T.C. Koopmans)의 “Postulational Structure of Economic Theory”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35, p.133].

한편 맹거(K. Menger)는 一般均衡理論에서 均衡이 存在問題를 최초로 論證한 왈드의 論文을 「數學談話會」의 雜誌(1933年—34年號)에 게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왈드의 業績에 의해 經濟學者가 오로지 方程式을 定式化할 뿐, 이를 解의 存在나 一義性(uniqueness)을 考慮하지 않는 時代는 終末을 고했다. 物理學者가 輪전 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經濟學者가 方程式을 定式化해서 그 解에 關心을 기지게 되면 經濟學者들은 存在와 一義性이라는 數學의으로 깊은 問題를 明示的으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44, p.18]. 그후 新古典派의 一般均衡理論은 이러한 方向으로 進展하게 되었던 것이다.

#### 4. 사뮤엘슨의 操作主義

사뮤엘슨의 經濟學方法論은 論理實證主義에서도 특히 物理主義의 代表的인 경우이다. 사뮤엘슨은 특히 브리지만(P.W. Bridgman)의 「操作主義」(operationalism)(*The Logic of Modern Physics*, 1927年)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이러한 見地에서 엮은 것이 그의 *Foundations of Economic Analysis*(1947年)이다[24, p.9].

이 著書에서 사뮤엘슨은 「操作的으로 有意義한 定理」(operationally meaningful theorem)를 강조하고 있다. 이 思考方式은 科學的 理論이란 條件만 許容하면 經驗的으로 拒否할 수 있는 假說, 즉 檢證에 의해 이것이 부합되지 않는 경우, 포기할 수 있는 假說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論理實證主義의 反證主義와 本質的으로 같은 立場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新古典派의 經濟學의 方法論은 論理實證主義에서도 物理主義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은 分明한 사실이다. 라이온후드도 왈라스의 一般均衡理論이 「뉴우톤의 古典力學」(Newtonian mechanics)에 基礎하고 있다고 한다[39, p. 410]. 또한 코네이는 「…쿠루노, 왈라스, 파레토가 활약한 時代는 古典力學이 自然科學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經濟學은 바로 이 古典力學에서相反되는 두 개의 힘인 均衡, 安定, 靜學的・動學的 均衡 등의 概念과 問題設定의 모든 것을 받아 들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問題의 數學的 定式化(微分積分學)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후 뉴우톤의 古典力學을 部分的으로 포함시키는 數學的 定式化가 物理學의 여러 分野에서 이루어졌지만, 經濟學의 一般均衡理論은 그 후도 계속 古典力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36, pp.380-381].

#### 5. 相互依存決定體系와 因果決定體系

왈라스의 一般均衡理論에서는 經濟活動의 相互依存關係가 하나의 體系 속에서 同時的으로 결정되므로 各部門의 因果關係를 구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마아샬의 部分均衡理論은 어느 特定分野에서 個別的인 問題에 대해 因果分析이 可能하지만 *ceteris paribus*의 假定에 弱點을 지니고 있다.

方法論에 있어서 一般均衡分析과 部分均衡分析의 長短點은 히스가 『價值와 資本』(1939年) 속에서 제기한 利子率論爭에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역시 이 두 가지의 分析方法이 라이온후드의 「케인즈의 經濟學」의 再解釋에 있어서나 Post-Keynesian의 方法論에 있어서나 또 다시 등장하고 있다. 一般均衡理論은 「全體」와 「部門」의 相互作用을 分析할 수 없다. 그래서 現實의 經濟를 分析하기 위해서는 相互依存決定體系와 因果決定體系를 幅넓은 經濟시스템 속에서 統合하려는 努力이 코네이의 業績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 VI. 不均衡理論의 方法論

不均衡狀態를 分析하기 위해 애로우-드브뢰型의 標準理論은 多岐多樣한 측면에서 그 擴張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分野에 紮한 서어베이는 專門家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25, 25a], 와인트라우브(E. Roy Weintraub)는 최근의 흐름을 ① Walrasian equilibrium, ② Walrasian disequilibrium, ③ Edgeworth equilibrium, 그리고 ④ Edgeworth disequilibrium의 네 가지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68]. 여기서 취급하는 클라우어, 라이온후드의 不均衡理論의 方法論은 ②의 Walrasian disequilibrium모델에 속한다.

클라우어의 不均衡理論을 要約하면 「需給이 일치하지 않는 不均衡狀態에서 價格體系를 變化시키지 않고, 生產, 交換, 消費의 ベルヌ스를 구할 수가 있느냐 하는 問題를 提起하고, 그 解答을 통해 케인즈의『一般理論』에 대한 解釋을 試圖하려고 한다. 이 接近方法은 앞에서 언급한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원래 經濟循環의 過程을 動學的 不均衡過程으로서 파악하려고 했던 케인즈의 當初의 意圖에 반하여 왈라스의 一般均衡모델의 태두리 속에서 『一般理論』을 理解하려 하는 點에서 矛盾된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宇澤弘文는 주장한다[66, p.17].

그런데 宇澤弘文에 따르면 不均衡狀態(false trading at false prices) 그 自體는 新古典派의 理論의 前提條件이 되어 있는 生產要素의「可塑性」과 價格麥卡니즘의 安定性과 矛盾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왈라스의 摸索過程의 一段階, 혹은 힉스의「週」의 一日(日曜日)에 있어서 各經濟主體는 끊임없이 計劃을 다시 세우고, 價格이 언제나 修正되어지는 過渡期的 狀態를 표시하며, 實際의 生產, 交換, 消費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狀態이며, 이러한 調整이 이루어지는 동안 時間은 힉스의「週」에서 보듯이 전혀 進行되지 않는 이른바 無時間性(timeless)의 前提條件이 암암리에 假定되어 있다고 한다.

요컨대 왈라스의「競賣人」에 의한 摸索過程(tâtonnement)을 빌리지 않고, 需給不均衡의 價格體系 밑에서 現實의 去來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微視的 次元에서 이론바 選擇理論的(choice theoretic) 見地에서 分析한 것이 클라우어의「再決定假說」이다.

Walrasian disequilibrium 모델에서 競賣人을 제외시키려는 논의도 있다. 이러한 경우 一般均衡理論의 태두리 속에 不完全競爭의 要素를 도입하게 되는데, 최근 根岸 隆는 이 分野에서 많은 業績을 보이고 있다[62]. 최근 클라우어, 라이온후드의 共同論文에서는 競賣人の概念을 완화시켜 “trade coordinator”라는 概念을 도입하고 있는데, 「去來費用」(transaction

cost)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6, p.184].

요컨대 情報傳達의 機能을 하는 왈라스的「競賣人」이 存在하지 않는 現實經濟의 不均衡狀態 밑에서는 「價格調整」(price adjustment)보다 사람들은 당분간 「數量調整」(quantity adjustment)을 통해서 상황을 관망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클라우어, 라이온후드의 경우, 케인즈의 乘數過程은 바로 이러한 不均衡狀態 밑에서 「數量調整」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며, 이러한 見地에서 케인즈의 消費函數를 再吟味하고 있다.

라이온후드에 따르면 케인즈의 理論體系에서 가장 중요한 特徵의 하나는 新古典派의 理論體系와는 달리 價格의 調整速度와 數量(產出量)의 調整速度를 頽倒하여 價格보다 數量의 調整이 빨리 適應한다는 데 있다고 보는 것이다. 라이온후드에 따르면 케인즈는 이러한 狀況을 分析하였으며, 마아샬의 「期間分析」(period analysis)을 적용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즉 케인즈는 資本主義經濟의 動學過程(dynamic process)을 比較靜學의 테두리속에서 「期間分析」의 方法을 가지고 連續的인 動學過程을 非連續的인 期間에서 連續的인 調整過程을 概念上으로 區分(partitioning)하는 方法을 적용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라이온후드는 「케인즈의 理論은 動學理論(dynamic theory)이지만, 그의 모델은 靜學的 모델(static model)이다」라고 보는 것이다[38, p.402].

라이온후드에 따르면, 케인즈가 그의 『一般理論』에서 취급한 本質的인 문제는 「過少雇傭均衡」이 아니라, 不均衡狀態에 적응하는 巨視經濟의 調整過程(macroeconomic process of adjustment to disequilibrating disturbance)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라이온후드는 「케인즈의 理論體系에서는 마아샬의 價格調整과 數量調整의 調整速度가 頽倒되어 있다. 그래서 “Keynes was very Marshallian”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케인즈는 마아샬이나 기타 新古典派의 價格理論者들과는 本質的으로 다른 方法으로 不均衡過程을 처리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40, pp.50—51].

## VII. Post-Keynesian의 方法論

### 1. 쿠운의 「파라다임」論

Post-Keynesian의 「새로운 파라다임」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이들의 基本的인 方法論이 있다면 그것은 쿠운의 「科學革命論」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37].

오늘의 「現代經濟學」이 基礎하고 있는 經濟學方法論은 일반적으로 포퍼의 反證主義나 物理主義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方法論에 대한 批判으로 등장한 것이 쿠운의 「科

學革命論」이라고 볼 수 있다.

反證主義에 대한 批判이 등장하게 되는 까닭은 이른바 科學的 假說에 대한 反證(falsification)의 論據 自體가 결코 絶對의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47, p.394]. 그래서 反證主義는 실제로 科學을 發展시키는데 그렇게 決定的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62, p. 203].

쿠운에 따르면 科學에 있어서 革命, 즉 科學革命(scientific revolution)이란 그가 말하는 「파라다임」의 交替에 不過하다. 파라다임이란 「範例」 또는 「範型」이라고 번역 할 수 있지만 幅넓게 해석하면 「學問의 基本型」이라고 볼 수 있다. 「파라다임」은 「基本型」을 표시하지만 결코 完結된 것이 아니며, open-ended되어 있어서 이것을 土臺로 加工作業(mopping-up operations)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作業을 하는 過程에서 모든 科學은 하나의 「正常科學」(normal science)의 位置를 차지하게 되지만 어느 段階에 도달하면 異常現象 즉 「變則性」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쿠운은 「變則性」라고 부르고 있다. 「變則性」이 累積되면 드니어 「새로운 파라다임」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 대체로 보아 쿠운의 「科學革命論」의 내용이다. 쿠운은 正常으로 發展하는 科學이 充足되어야 할 여섯가지의 條件을 들고 있으며, 한편 科學命革이 일어나는 여덟가지의 條件을 들고 있다.

쿠운의 方法論에 대해 라카토스(I. Lakatos)는 SRP論(Scientific Research Programme)을 가지고 批判을 가하고 있는데, 그 要旨는 理論假說을 하나의 research programme으로 보고 假說을 ① hard core와 ② protective belt로 나누어서, hard core는 「變則性」이 일어나도 결코 修正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한편 protective belt는 hard core에 대한 일종의 補助假說로 보며, 經驗的인 反證이 있는 경우, 이 補助假說만이 修正된다든가 代替되어 hard core가 지켜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블라우와 같이 經濟學에 있어서 革命이란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持論이 등장할 수가 있다[4, pp.169—170]. 그러나 크레겔은 Post-Keynesian의 「새로운 파라다임」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쿠운이 말하는 이른바 “Gestalt shift”를 강조한다[33, pp.3—4].

## 2. 經濟學의 分類理論

이미 지적했지만 Post-Keynesian의 方法論을 「經濟學의 分類理論」이라고 부르는 수가 있다. Post-Keynesian의 경우, 이미 지적했듯이 「케인즈革命」의 意義를 現實經濟의 「不確實性」에서 찾고 있다. 케인즈는 現實의 經濟를 分析하는데 「期待」(expectation)의 概念을 가지고 分析하고 있다는 것이다.

크레겔에 따르면 케인즈는 사실상 ① 靜學的 均衡(static equilibrium)모델(1937年), ② 定常的 均衡(stationary equilibrium)모델, 그리고 ③ 移動均衡(shifting equilibrium)모델의 세

表4 [Post-Keynesian의 分類理論]

	長 期 期 待	短 期 期 待	長期期待와 短期期待의 相互作用
靜態的 모델	一定水準에 固定	實現된다	獨立的이다
定常的 均衡모델	一定水準에 固定	實現되지 않을 수도 있다	獨立的이다
移動均衡모델	時間을 통해서 移動한다	實現되지 않는다	相互依存의이다

註：靜態的 모델을 케인즈의 1937年の講義 노우트에서, 나머지 두개의 모델은 케인즈의『一般理論』에서 케인즈가 지닌 모델이라고 크레겔은 보고 있다.

가지를 想定하였다고 본다[34, pp.214—217]. 表4는 세 가지의 모델과 長期・短期의 期待에 대한 Post-Keynesian의 見解를 表示한 것이다. 세 가지 모델 중에서 ③의 移動均衡모델은 케인즈의 動學모델이지만, 로빈슨女史는 칼레카의 tranquility모델을 중심으로 現實의 資本主義의 經濟成長이 이른바 「黃金時代」(golden age)의 均衡으로부터 乖離된다는 것을 論證하게 되지만, 이 tranquility모델은 ②의 定常的 均衡모델과 同等하다고 크레겔은 보고 있다. 케인즈의 monetary-production economy를 分析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分析方法이 新古典派의 均衡分析에 代替할 수 있는 方法이라고 주장한다[34, p.222].

이러한 Post-Keynesian의 方法論을 크레겔은 methodology of the economics of uncertainty라고 부르고 있으며[34, p. 223], Post-Keynesian들은 分配問題, 技術進步, 價格決定要因 등 經濟시스템의 決定要因들을 케인즈모델을 擴張하여 個別的으로 여러가지 問題를 分析하려는 것이 그 目的이라고 한다.

이러한 接近方法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問題를 同時に 分析할 수 없다. 따라서 Post-Keynesian의 方法論이란 “one at a time”的 Marshallian이라고 크레겔은 말하고 있다[34, p.219]. 끝으로 一般均衡理論에 設定되어 있는「完全豫見」(perfect foresight)의 假定을 완화시켜「不確實性」의 要因을 도입하려는 一般均衡理論家들의 최근의 研究方向과 Post-Keynesian의「不確實性」의 性格과는 基本的으로 다르다는 點을 크레겔은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 VIII. 結 語

이상에서 우리는「現代經濟學」을 均衡・不均衡・反均衡理論의 代表的인 것을 중심으로 方法論의 見地에서 그 흐름을 考察하였다. 問題의 焦點은 經濟學을「經濟科學」의 純粹理論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政治經濟學」의 道德科學으로 보느냐의 문제로 归着되는 것이다.

新古典派經濟學에 대한 Post-Keynesian, 또는 寛은 의미에서「現代 케임브리지學派」의 挑戰은「現代經濟學」으로 하여금 經濟科學으로부터 道德科學으로 환원하여 英國의 正統派經

濟學을 復活시키려는 一聯의 움직임이라고도 풀이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未來의 經濟學」에 대한 틴베겐(J. Tinbergen), 라이벤쉬타인(H. Leibenstein), 해로드, 뷔르달, 카프(W. Kapp) 그리고 都留重人(S. Tsuru)의 見解를 收錄한 論文集에서 도퍼(K. Dopfer)는 이들의 見解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經濟學의 方法論에 대한 方向을 제시하고 있는데[10], 이것을 土臺로 해서 정리해 보기로 한다.

첫째, 經濟學의 方法論에 長期的 見解가 援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需給의 分析用具 이외에 制度的 變數, 歷史的 諸條件, 歷史的 時間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經濟學은 經驗的 事實(empirical facts)에 대한 檢證과 反證을 通해서 現實의 經濟構造를 究明하는 經驗科學으로 指向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틴베겐이 강조하고 있듯이 「理論的研究보다 오히려 經驗的研究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65, pp.44—45].

세째, 經濟學을 「政治經濟學」의 道德科學으로 보는 方法論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現實經濟의 所得分配의 不平等化傾向을 앞에 두고 新古典派의 效率性基準은 無力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째, 도퍼는 holistic approach라고 부르고 있는데, 現實經濟를 分析하는데 있어서 周圍環境을 觀察하는 方法이며, 일종의 interdisciplinary 接近方法의 「시스템分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상이 도퍼가 제시한 앞으로의 研究方向이다.

다섯째, 「시스템分析」과 關聯하여 그 속에 援用할 수 있는 하나의 비전으로서 稲田獻一(K. Inada)의 見解를 보면, 經濟現象을 物理現象에서 生物現象 또는 幅넓게 生態現象의 類推로서 把握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27, pp.165]. 한편 稲田獻一은 이러한 現象을 分析할 수 있는 「catastrophe의 數學理論」이 오늘날 展開되고 있다는 點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63].

## 參 考 文 獻

- [1] Arrow, K.J., "Samuelson Collec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Oct. 1967.
- [2] \_\_\_\_\_, "Limited Knowledge and Economic Anal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74.
- [3] Barro, R.J. and H.I. Grossman, "A General Disequilibrium Model of Income and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71.
- [4] Blaug, M., *The Cambridge Revolution, Success or Failure?*,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74 (福岡正夫・松浦保共譯, 『ケンブリッジ革命』, 東洋經濟新報社, 1976).
- [5] Clower, R., "The Keynesian Counterrevolution: A Theoretical Appraisal," *The Theory of Interest Rates*, edited by F.H. Hahn and F.P.R. Brechling, Macmillan, 1965.

- [6] Clower, R. and Axel Leijonhufvud, "The Coordination of Economic Activities: A Keynesian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5.
- [7] Crouch, R.L., *Macroeconomics*, Harcourt Brace Jovanovich, 1972.
- [8] Coddington, A., "Keynesian Economics: The Search for First Principl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Dec. 1976.
- [9] Dobb, M., *Theories of Value and Distribution Since Adam Smi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 [10] Dopfer, K. ed., *Economics in the Future*, Macmillan, 1976.
- [11] Dorfman, R., P.A. Samuelson, R.M. Solow, *Linear Programming and Economic Analysis*, McGraw-Hill, 1958.
- [12] Eichner, A.S. and J.A. Kregel, "An Essay on Post-Keynesian Theory: A New Paradigm in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Dec. 1975.
- [13] Friedman, M.,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3.
- [14] 川口弘, 「〈一般理論〉評價の変遷とポスト・ケインジアン」, 『經濟セミナー』, 1977年 5月號。
- [15] Galbraith, J.K., "Power and the Useful Economist,"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73.
- [16] Hahn, F.H., "The Winter of Our Discontent," *Economica*, Aug. 1973.
- [17] Hansen, A.H., *Monetary Theory and Fiscal Policy*, McGraw-Hill, 1949.
- [18] Harcourt, G.C., "Some Cambridge Controversies in the Theory of Capital,"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June 1969.
- [19] \_\_\_\_\_, *Some Cambridge Controversies in the Theory of Capita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2.
- [20] Hicks, J.R., "Mr. Keynes and the Classics: A Suggested Interpretation," *Econometrica*, April 1937.
- [21] \_\_\_\_\_, *Value and Capital*, Oxford, Clarendon Press, 1939 (2nd ed., 1946).
- [22] \_\_\_\_\_, *Capital and Growth*, Oxford, Clarendon Press, 1965.
- [23] \_\_\_\_\_, *The Crisis in Keynesian Economics*, Oxford, Basil Blackwell, 1974.
- [24] 福岡正夫, 「サムエルソン經濟學—その現代經濟理論への貢獻」, 『經濟セミナー』, 1970年 12月號。
- [25] \_\_\_\_\_, 「ケインズ經濟學のミクロ理論的基礎」, 『季刊理論經濟學』, 1974年 4月號。
- [25] \_\_\_\_\_, 「均衡理論の進路」, 『季刊理論經濟學』, 1977年 4月號。
- [26] Hutchison, T.W., *The Significance and Basic Postulates of Economic Theory*, 1938.
- [27] 稲田獻一, 「經濟學と生物學」, 『季刊現代經濟』, 日本經濟新聞社, Summer, No. 18, 1975.
- [28] Johnson, Harry G., "The Keynesian Revolution and the Monetarist Counter-Revol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1.
- [29] Kaldor, N., "The Irrelevance of Equilibrium Economics," *Economic Journal*, Dec. 1972.
- [30] \_\_\_\_\_, "What is Wrong with Economic Theor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 1975.
- [31] Klein, L.R., *The Keynesian Revolution*, Macmillan, 1947(2nd ed., 1966).
- [32] Kregel, J.A., *Rate of Profit, Distribution and Growth: Two Views*, Macmillan, 1971.
- [33] \_\_\_\_\_, *The Reconstruction of Political Economy; An Introduction to Post-Keynesian Economics*, second ed., 1975.
- [34] \_\_\_\_\_, "Economic Methodology in the Face of Uncertainty; The Modelling Methods of Keynes

- and the Post-Keynesians," *Economic Journal*, June 1976.
- [35] Koopmans, T.C., *Three Essays on the State of Economic Science*, McGraw-Hill, 1957.
- [36] Kornai, J., *Anti-Equilibrium: On Economic Systems Theory and the Tasks of Research*, North-Holland, 1971(岩城博司・岩城淳子共譯, 『反均衡の經濟學』, 日本經濟新聞社, 1975).
- [37] Kuhn, Thomas 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2(2nd ed., 1970).
- [38] Lange, Oscar, *Price Flexibility and Employment*, Bloomington Principia Press, 1944.
- [39] Leijonhufvud, Axel, "Keynes and the Keynesians; A Suggested Interpret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67.
- [40] \_\_\_\_\_, *On Keynesian Economics and the Economics of Keynes*, Oxford University Press, 1968.
- [41] \_\_\_\_\_, *Keynes and the Classics*, The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1969.
- [42] Leontief, W., "Theoretical Assumptions and Non-observed Facts,"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71.
- [43] 松浦保, 『現代經濟學の潮流』, 日本經濟新聞社, 1974.
- [44] Wald, A., "Über die eindeutige positive Lösbarkeit der neuen Produktionsgleichungen"(Part 1), *Ergenisse eines mathematischen Kolloquiums*, Heft 6, 1933/34, ed. by Karl Menger, 1935, p.18. English trans.: "On the Unique Non-Negative Solvability of the New Production Equations," (Part I) in *Procurors in Mathematical Economics: An Anthology*, selected and edited by W.J. Baumol and S.M. Goldfeld, 1968, p.288.
- [45] Modigliani, F., "Liquidity Preference and the Theory of Interest and Money," *Econometrica*, 12, 1944, *Readings in Monetary Theory*, Irwin, 1951에 收錄.
- [46] \_\_\_\_\_, "The Monetary Mechanism and Its Interaction with Real Phenomen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eb. 1963.
- [47] Musgrave, A.E., "Falsification and Its Critics," *Logic, Method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IV*, ed. by P. Suppe & et al., 1973.
- [48] C. Napoleoni, "Economic Thought of the Twentieth Century," A Cigue ed., London, Martin Robertson, 1972.
- [49] 根岸 隆, 「ケインズ經濟學と均衡理論」, 『ケインズと現代經濟學』, 館龍一郎編, 東京大學出版會, 1968.
- [50] \_\_\_\_\_, 「Involuntary Unemployment and Market Imperfection」, 『季刊理論經濟學』, 1974年 4月號.
- [51] \_\_\_\_\_, 「價格理論の使いよう」, 『經濟セミナー』, 日本評論社, 1976年 5月號.
- [52] \_\_\_\_\_, 「ケインズ的均衡のミクロ理論」, 『經濟評論』, 1977年 3月.
- [53] Patinkin, Don, *Money, Interest and Prices*, Harper & Row, 1956 (2nd. ed., 1965).
- [54] \_\_\_\_\_, "Price Flexibility and Full 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48.  
o) 論文은 修正해서 다음 文獻에 收錄되어 있음. Don Patinkin, *Studies in Monetary Economics*, Harper & Row, 1972.
- [55] Phelps Brown, E.H., "The Underdevelopment of Economics," *Economic Journal*, March 1972.
- [56] Rymes, T.K., *On Concepts of Capital & Technical Chan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 [57] Robinson, Joan, *The Rate of Interest and Other Essays*, Macmillan, 1952.
- [58] \_\_\_\_\_, *The Accumulation of Capital*, Macmillan, 1956.

- [59] \_\_\_\_\_, *Economic Heresies*, Basic Books, 1971 (宇澤弘文譯, 『異端の經濟學』, 日本經濟新聞社, 1973年).
- [60] \_\_\_\_\_,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 [61] \_\_\_\_\_ and J. Eatwell,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McGraw-Hill, 1973.
- [62] 佐藤隆三, 「論理實證主義と經濟學の方法論」, 『近代經濟學の系譜』, 玉野芳郎・柏崎利之輔編, 日本經濟新聞社, 1976.
- [63] 佐和隆三, 「カタストロフィの理論と經濟學」(上・下), 『經濟セミナー』, 日本評論社, 1973年10月號, 11月號.
- [64] Sraffa, Piero, "The Laws of Returns under Competitive Conditions," *Economic Journal*, 1926, *Readings in Price Theory*, edited by K.E. Boulding & G.T. Stigler, 1952.
- [65] Tinbergen, J., "More Empirical Research," *Economics in the Future*, edited by Kurt Dopfer, Macmillan, 1976.
- [66] 宇澤弘文, 「ケインズと新古典派」, 『季刊現代經濟』, 日本經濟新聞社, Summer, No. 18, 1975.
- [67] \_\_\_\_\_, 『近代經濟學の再検討一批判的展望』, 岩波新書, 1977.
- [68] Weintraub, E. Roy, "The Microfoundations of Macroeconomics: A Critical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March 1977.
- [69] \_\_\_\_\_, "General Equilibrium Theory," *Modern Economic Thought*, edited by Sidney Weintraub,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7.
- [70] Weintraub, Sidney, "Hicksian Keynesianism: Dominance and Decline," *Modern Economic Thought*, edited by Sidney Weintraub,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7.
- [71] Worswick, G.D.N., "Is Progress in Economic Science Possible?" *Economic Journal*, March 1972.
- [72] 安井琢磨・熊谷尚夫・福岡正夫共著, 『近代經濟學の理論構造』, 筑摩書房.
- [73] Keynes, J.M.,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 1937.
- [74] Davidson, Paul, "Post-Keynes Monetary Theory and Inflation," *Modern Economic Thought*, edited by Sidney Weintraub,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77.